

진실의 힘

TRUTHFOUNDATION

현장

형제복지원 후신 '실로암의 집' 기록 이관 현장방문

이사람 인권사업 팀장



| 실로암의 집 내부는 충격적이었다.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분량의 문서들이 방치되어 있었다. 그중 상당수가 형제복지원을 운영했던 법인이 해산할 때까지의 운영, 행정 기록 등이었다. 이전에 형제복지원 대책위, 부산시 형제복지원 실태조사팀 등이 진실규명 관련 기록을 찾기 위해 실로암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위주로 확보했을 뿐, 남아있는 기록 전체를 파악하진 않은 것으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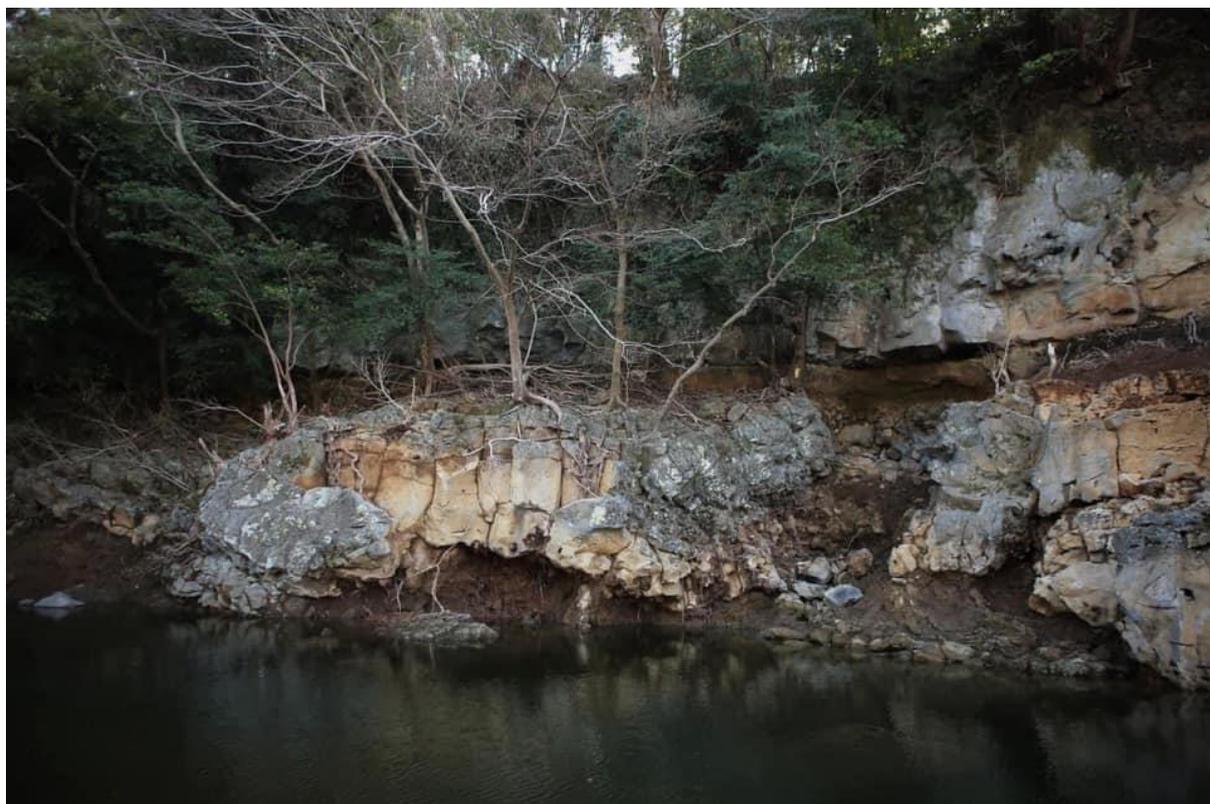
하지만 건물 내 '방치'된 전체 기록은 그 이상이었다. 방대한 기록 속에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각들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유튜버들 사이에서 자극적인 '소재'로 다뤄지면서 실로암의 집에는 낯선 방문자가 늘어나고 있었다. 하루빨리 낯장 하나까지 모든 기록을 안전한 장소로 이관해야 했다. [▶자세히 보기](#)

칼럼

도래하는 국가폭력, 가덕도 신공항

엄문희 강정평화네트워크 활동가



|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국가는 외형상 형식과 절차를 갖추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무책임하게 일 저지르고 이것에 저항하는 시민은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공권력을 사용한다. 타당성을 조사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단계부터 주민과 동등하게 대화하지 않는다. 구럼비는 그렇게 파괴되었고, 가덕도도 그 운명 앞에 놓였다.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법으로 돌아왔다. 통치의 절대적 수단인 특별법과 함께.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했)는지를 공유하고 역사적 반성으로 끌어내지 못한다면, 질문은 피해구제에만 머물게 될 것이고, 여지껏 국가는 그 방법으로 문제의 책임에서 도망쳐왔다. 이제 그 국가를 붙들어 가해자의 이름을 부여할 때다. 국가폭력을 해당 지역의 피해로서 하나의 '사건'으로 고착하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 사회학자 윤여일은 정치적 광장의 부재를 떠올리며 "민주주의는 좋은 목자를 고르는 게 아니라 양 떼로 전락하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발표를 듣고 떠올랐던 말이다. ▶[자세히 보기](#)

칼럼

코로나로 멈춘 일상, 계속되는 청계천-을지로 재개발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 2020 년은 코로나 19 가 본격화된 시기이자 청계천-을지로에서는 재개발의 속도가 가속화된 시기이다. 2019 년 1 월 서울시의 전면 재검토 발표에도, 2020 년 3 월 종합대책 발표에도

재개발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코로나 19 사태가 심화되었던 2020 년 하반기에는 오히려 상인들을 내쫓고 철거를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가의 모든 중요한 일들은 멈췄는데 도심 산업의 역사를 만들어온 상인들의 삶을 파괴하는 재개발은 예외였다.

코로나 19 로 일상은 멈췄는데 청계천-을지로 재개발은 왜 계속되는가.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재앙의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인권이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와 자본에 의해 처참하게 파괴되는가. 행정의 나서서 상공인들을 위한 긴급지원을 해줘도 부족할 시기에 오히려 이들을 강제로 길거리로 내쫓아내려고 하는 폭력적인 행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성찰해봐야 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떤 가치들이 지켜져야 하는가. [▶자세히 보기](#)

칼럼

더 많은 '기후불복종' 행동을 위해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것은 상당수의 시민들이 변화를 이루어낼 정상적 통로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불만이 더 이상 청취되지 않거나 처리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 또는 그와 반대로 정부가 그 적법성과 합헌성이 심각히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어떤 변화를 피하거나 정책에 착수하고 추진한다는 확신이 들 때이다.” (한나 아렌트)

지금 우리의 상황이 딱 이렇다. 기후위기를 선언하고 탄소중립을 천명하는 국회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판을 외면할 때, 시민들은 그들의 사무실을 봉쇄하고 점거하며 경고하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 ‘기후불복종’은 시민들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믿는다. [▶자세히 보기](#)

칼럼

산, 바다, 들녘이 태양광으로 뒤덮였다

최병성 목사 · 환경운동가



| "이게 나라입니까? 돈이 있으면 이 나라를 떠나고 싶습니다. 이 꼴 보자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는지 한탄스럽습니다."

초로의 노인이 일어나 피를 토하듯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성토했다. 토론회 후 노인과 함께 전남 무안 간척지로 갔다. 10만 평의 땅에는 태양광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노인이 왜 "이게 나라냐?"라고 절규했는지 현장을 보고 이해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전남 무안 복길 간척지 60만 평, 영암 삼호읍과 미암면 간척지 500만 평, 나주 60만 평, 완도 약산면 간척지 50만 평 등 간척지마다 태양광으로 뒤덮였다. 전기가 필요한 곳은 도시인데 왜 땅 끝에 태양광을 해야 하나.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전기 식민지'로 전략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칼럼

눈부시게 찬란했던 봄은 어디 가고

김형숙 세월호 생존자 김동수님 아내



| 6년 전 2015년 3월 19일은 동수 씨가 첫 자해를 한 날이다. 우연히 며칠 전에 그때 살던 집을 다녀왔다. 그날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름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 많은 집이었다. 반지하에 종일 햇빛 한 번 들어오지 않아서 낮에도 전등을 켜야만 지낼 수 있지만 우리 가족 모두 그 집에 사는 것이 좋았다. 마당이 습해서 벌레들이 거실에서 같이 살고 2층 주인집이 학교 후배라 불편함도 없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꿈을 키우고 있었다. 화물 기사를 하던 동수 씨의 화물차 할부금이 끝나면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야겠다는 야무진 꿈 말이다. [▶자세히 보기](#)

에세이

어쨌든, 춤을 출 수 있으니까

김권호 후원회원



| 개중에는 다치기 전에도 못하던 것들이 훨씬 많다. 타고나길 운동을 워낙 못해서 단체 운동은 어디서 하든 깎두기 신세였지, 뭘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문득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어디쯤인지 헷갈린다. 제대로,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의 기준은 어디 있는 걸까? 연말정산 때 공제도 받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다시 받아 후유장애보험금도 받은 것을 보면 그 경계가 어딘가에 있긴 있을 텐데 말이다.

미혼인 데다 별다른 공제항목도 없어서 장애인 인적공제는 제법 쓸쓸하다. 13 월의 월급까지는 아니어도, 예상치 못한 거금 지출은 막아준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 전 받은 6 등급의 복지카드 덕분에 문화재 입장료 같은 것도 할인받는다. 장애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장애 등급 기준을 알아봤을 때, 척추 뼈마다 점수를 매겨놓은 표는 좀 신기하긴 했다. 장애라는 것이 참 인위적이고 사회적으로 정의되는구나 싶었다. [▶자세히 보기](#)

후원회원 인터뷰

"시민들도 기후위기 대응, 인권운동을 배워야 해요"

이해림 후원회원



| 올해 5살인 김시현 님은 진실의 힘 최연소 후원회원입니다. 먼저 진실의 힘 후원을 시작한 이해림 님은 2년 후 아들 시현이의 이름으로 두 번째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이해림 님은 지난해 환경 NGO '푸른아시아'에서, 교육 중심의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환경, 노동, 장애, 여성 등 모든 영역에서 미래 세대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활동에 힘을 쏟기 위해서입니다. 시현이 이름으로 두 번째 후원을 시작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친환경과 저탄소 습관을 배우는 것처럼 제도적, 사회적 폭력이 무엇이며, 시민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
[▶자세히 보기](#)

연구

수용시설 아동학대 과거청산의 세계적 흐름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이사랑 인권사업 팀장
주윤정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 전세계적으로 아동, 소수자, 장애인, 원주민에 대한 과거의 폭력과 이에 대한 회복적 정의의 구현이 이행기 정의의 새로운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시설수용 아동학대에 대한 아일랜드와 호주의 진상규명과 회복적 정의의 사례를 살펴봤다. 세계적으로 진상규명과 화해를 넘어 피해자 중심적인 진상규명,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변형적 정의(transformative justice)의 구현이 활발히 이뤄지는 흐름에서 한국의 2기 과거사위 활동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까. [▶자세히 보기](#)

사업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지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재출범했습니다. 진실의 힘은 1기 진화위(2006~2010)가 당시에는 인권 침해적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등 강제수용시설 문제를 비롯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을 발굴하고, 진실규명 신청을 하는 피해자들을 지원합니다.

[▶자세히 보기](#)

공지

제 1 회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소송 제안서 공모 및 지원사업 선정 결과

[▶자세히 보기](#)

후원회원

진실의 힘 후원회원

2021년 1, 2, 3월 후원회원

1월 219분, 2월 222분, 3월 221분이 후원해주셨습니다.

새 후원회원님, 반갑습니다.

최진숙, 장윤정, 정의로님



진실의 힘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어떤 제안, 문의든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메일 보내기](#)



재단법인 진실의 힘

truth@truthfoundation.or.kr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세종대로 19길 16 성공회빌딩 302호

02-741-6260

[수신거부 Unsubscribe](#)

